

금강 살리기 관련 갈등현장 지원체제 구축 모색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러스충남 정책포럼”은 2009년 주요사업으로 갈등현장 지원체제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포럼의 최병학 운영위원장(충남발전연구원 지역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4월 10일 충남발전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강 살리기 공동협력 포럼」에서 “성공적인 금강 살리기를 위한 시·군 공동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하였다.

또한 포럼사단측에서는 지난 5월 11일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4대강(금강) 살리기(안) 지역설명회(충남)에 참석하여,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사업추진본부의 홍보동영상 시청, 마스터플랜(안), 패널토론, 주민의견 등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다양한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본 포럼에서는 향후 금강 살리기 사업 추진 관련 갈등예방관리 강화사업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갈등관리 모니터링 제도와 민·관 협력 모니터링 센터의 도입 및 설치를 검토 중에 있다.

“사회갈등포럼”과의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체제 강화



「상생협력·갈등관리 플리스충남 정책포럼」은 2007년 8월 20일 상호협력 MOU 협약을 맺은 사회갈등연구소(소장 박태순)의 “사회갈등포럼”과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3월 27일 16시에 서울 사랑의 연매회관 지하 2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사회갈등포럼” 창립 발기인 대회에 본 포럼 운영위원장 최병학 박사는 창립 발기인 및 창립 실무위원으로 참석하여, 충남포럼의 운영사태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더불어 상생협력·갈등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또한 본 포럼에서는 4월 24일과 5월 22일에 열린 두 차례의 “사회갈등포럼”의 실무회의 등에도 참석하여, 갈등관리에 대한 의견을 조율하였으며, 6월 5일 14시부터 사랑의 연매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사회갈등포럼” 창립 기념 토론회 및 창립대회에 참석하여 “제주 해군기지 건설 사업으로 발생한 서귀포 강정마을 갈등 현황과 공동체 회복방안”에 대한 토론을 청취하였고, 다양한 갈등관련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앞으로 충남포럼과 “사회갈등포럼”간의 지속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협의하기도 하였다.

